

기회 대한민국의 최고 미술대전 최우수상에 이경아·김송자씨



최우수상 이경아 작 '석가모니 삼존불'.

8월 30~9월 5일 인사아트센터서 전시

제21회 대한민국불교미술대전(이하 불미전)에서는 회화 97점, 조각 23점, 공예 30점 등 총 150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수상작은 총 54점으로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특별상인 문화관광부 장관상 1점 포함), 우수상 3점(특별상인 문화재청장상 1점 포함), 장려상 6점, 특선 12점, 입선 29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상작 '석가모니불'은 재료가 거칠고, 크기가 작은 것이 다소 아쉽기는 하나 토속적인 신앙과 투박한 아름다움이 돋보이는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석가모니불'은 한국의 미를 토속적으로 표현하며 연화좌위의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비로운 미소로 교화를 하고 계신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대상수상자에게는 상패와 함께 상금 1200만원(작품구입비 포함), 최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 및 상금 300만원, 우수상에게는 각각 상패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에는 상패 및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된다.

이번 불미전은 접수된 작품의 65%가 회화였다. 7월 21일 제2차 불미전 운영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심사위원들도 회화 5명, 조각 3명, 공예 3명 등 회화에 비중을 뒀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 최완수 관장(간송미술관)을 비롯해, 오원배 교수(동국대), 이진형 관장(여진미술관), 강순형 학예연구실장(광주박물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심사위원장 최완수 관장은 "좋은 작품도 많았지만 태자, 수준미달 작품들도 있어서 기법이나 불교이해가 수준미달인 경우 가져와서 낙선시켰다"며 "불미전의 권위를 확실하게 세우기 위해 예년보다 가혹한 기준으로 심사한만큼 접수작품수에 비해 입선이 적었다"고 전체적인 심사평을 밝혔다.

한편 올해 최초로 제정된 정부기관특별상인 문화관광부장관상은 최우수상급이며, 우수상급인 문화재청장상은 보다 전통적인 기능성을 담은 작품에 돌아갔다.

수상작은 8월 30일~9월 5일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전시된다. 시상식은 30일 오후 2시. **김지연 기자**

제21회 불미전 수상작

수상 순격	분야	작가명	작품명
대상	조각	남진세	석가모니불
최우수상	회화	이경아	석가모니 삼존불
최우수상	공예	김송자	12각 찻상(신묘정구대리니)
문화관광부장관상(특별상)	회화	윤신아	나한
우수상	회화	전미향	노사불도
우수상	조각	소정숙	목어(4 in 1)
문화재청장상(특별상)	공예	장재원	국당초문 염주함
장려상	회화	김은옥	심우도
장려상	회화	예정화	영산회상도
장려상	공예	이창실	발원
장려상	공예	윤이성	한지 단청문 불화액자
장려상	조각	노정용	연지에 핀 불심
장려상	조각	김평기	목조약사여래삼존불



문화관광부장관상 윤신아 작 '나한'.



우수상 전미향 작 '노사불도'.



문화재청장상 장재원 작 '국당초문 염주함'.

종로구 사립박물관 뭉쳤다

가회·목인 등 9곳 첫대박물관서 연합展



'목조오나한상'은 한국불교미술박물관이 선보였다.

종로구에 위치한 사립박물관 9곳이 독특한 '종로구 박물관 연합전'을 7월 27일~8월 16일 서울 첫대박물관 2·3층 전시장에서 펼친다.

사립박물관의 일반적 종로구를 대표하는 가회·목인·삼성출판·세계장신구·첫대·짚풀생활사·조선섬유·퀵트·한국불교미술박물관, 티베트뮤지엄 등 총 9개 사립박물관이 동참했다.

이번 연합전을 기획한 김중규 한국박물관협회장(삼성출판박물관장)은 "운영의 어려움은 사립박물관 모두가 한결같이 겪는 당연한 과정으로 배운 위기에 처한 박물관도 여



가회박물관이 전시에서 선보인 '추상인물도8폭 병풍'.

섯 있다"며 "사립박물관의 고사는 우리 문화의 한 기둥이 상실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기에 사립박물관들이 힘을 합쳐 수집을 시작할 때의 초발심으로 돌아가 문화 선구자의 등불 아홉 개를 밝혀야 한다"고 이번 연합전의 의미를 밝혔다.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동일 지역 사립박물관들의 소장품 연합전시회. 연합전이 주는 문화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번 연합전을 개최하는 의미를 9개 사립박물관 연합은 3가지로 요약한다. 첫째 사립박물관을 지역사회에 알리며 이웃과 함께 하는 문화기관으로서의 역할 자리매김.

둘째 사립박물관이 아니면 기획할 수 없는 다양하고 독특한 소장품의 한 지붕 전시, 셋째 재정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립박물관의 자생력 실험 등이다.

전시회에서는 라마승 성상(티베트뮤지엄), 목조오나한상, 의경동필수월관음도(보물 제1204호, 이상 한국불교미술박물관), 봉황을 탄 동자(목인박물관), 티베트 자물쇠(첫대박물관), 추상인물도8폭병풍(가회박물관), 오색비단조각보자기(조선섬유·퀵트박물관) 등 9개 사립박물관의 간판 작품들을 한자리에 만날 수 있다.

1000원으로 책정된 전시회 입장료는 전액 종로구 지역의 불우 이웃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02)766-6494

김지연 기자 jyng@buddhania.com

웃는 도깨비, 인기 비결은?



원숭이도깨비



왕눈이도깨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전통문화의 만남을 위해 마련한 2006 체험과 함께 하는 특별전 '웃는 도깨비'가 7월 21일 개관한 이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다. 8월 12일까지 마련된 각종 체험행사는 모두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서울중요무형문화재전시회관 기획전시실에서 무료 개방되는 '웃는 도깨비' 특별전에서는 다양하면서도 선조들의 일상 곳곳에 자리잡았던 도깨비의 얼굴을 접할 수 있다.

'웃는 도깨비'가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도깨비는 무섭고 두려운 존재이면서도 어딘지 모르게 친숙하며 장난기 넘치는 익살스러운 존재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양면성을 가진 도깨비를 표현한 문화재 130여점을 선보인다.

사찰 건축물의 처마 부분에 그려넣은 도깨비 얼굴, 도깨비와 용을 그려 넣거나 조각해 상여를 장식했던 반원 모양의 용수반, 통일신라부터 조선시대까지 다양한 귀면과 등 형소 전래설화에서나 만나던 도깨비의 모습을 전통기와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덧붙여 울마리(비메울이) 씨진 삼두조 부적과 사천왕상, 호랑이, 번, 목인, 목조동자상, 석제동자상, 목탁, 여산신 등도 만날 수 있다. (02)3011-2163 **김지연 기자**

세계최고의 염주 소원성취척척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금강의 강한기로 건강을 지키는 금강염주

금강염주는 60여종의 미세한 원소와 95%의 높은 원적외선, 음이온이 발생하여 98%의 살균작용을 하며 황산화의 몇 배 강한 흡착력이 동시에 이루어져 뇌가 맑아지고, 원활한 신진대사, 혈액순환등에 효과적으로 북한에선 일부귀족만 사용하며 뇌졸중, 중풍,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천식, 치매, 아토피등 치료제로 사용됩니다. 오염원공기, 수맥파, OA기, 컴퓨터에 의한 전자파등 현대의 환경속에서 건강이 약해지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건강증진 및 활력증강을 드리는 세계 최고의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금강염주는 사찰할 법인이 집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성당합니다. 신용카드도 분할구입 가능합니다.

철십이 들어간 12단주를 제작하였으므로 정전하는 스님 및 불자들에게 주면 됩니다.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금강염주

세계최고의 금강염주 주성분인 금강염주는 북한특산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며 이곳은 원효대사께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받아 유학을 포기하고 참선인이 하시던 곳으로 유명한 일화가 있는 곳입니다. 금강염주사에서 국내 독점으로 반입, 조립, 시험하며 화해와 선행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하신 스님 및 불자들에게 효능을 인정하시며 모든 분께 최고의 선물을 추가 주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기로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과 맑은 영으로 정신이 안정되며 악귀와 잡귀들이 보기만 해도 도망쳐서 액운과 화를 쫓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오며 금강의 강한 기와 지혜로 2가지 소원이 꼭 성취되며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기도 정전사 부처님의 대광명, 대성취를 이루어서 기뻐할 것입니다.

이런분은 스님께 보시 또는 본인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분
-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 결혼매물을 찾고 계신 분
-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를 성원에 주신 모든 스님 및 불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1세트 가격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 108염주, 12단주 195,000원
- 108염주, 12단주, 손목염주 225,000원

입금규칙 : 농협 743-02-563237 (정혜림)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전화로 주소성명을 알려주시면 우체국 송금으로 전국 어디서나 받아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흥 8/0 406호)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가격 245,000원

- ◆ 삼성화재 배상보험가입
- ◆ 특허청 실용신안출원
- ◆ 전자파 장애실험필

생명의 빛 건강의 기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북한3대 특산품의 금강염주가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34개의 금강염주 불이 70-80℃의 고열이 발생 할 때 백색 깊숙이 강력한 복사 에너지가 침투하여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으로 속피부보다 간편하며 효과적인 복대방식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어떤 곳에도 복대하고 편안하게 얹거나 누워만 있어도 장속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생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우수한 의료기기입니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가격은 최저 효능은 최고

오장 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피부를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의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은행석 온열복대는 고열의 원적외선 “침”이 백색 깊숙이 침투 뜨겁게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는 신비한 제품으로 허리, 발바닥온열 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안전하고 편리한 다용도의 은행석 온열복대는 꾸준히 사용하시면 건강도 지키며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고 장수합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배(오장육부)는 차기워 집니다

암을 예방하는 WBH 치료법을 응용한 온열복대

미국, 독일, 일본등에서 처음 시도되었던 FIRWBH(원적외선 전선온열)이 최근 한국 암재활 센터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환자의 전신을 42℃까지 가온시켜 1시간동안 유지하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여 치료하기도 하며 악성종양과 병합으로 암치료 효과를 높여주는 치료방법이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80℃의 고열이 발생 원적외선이 백색 깊숙이 침투하여 체온까지 42℃의 열을 가온시키는 의료기기입니다.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9 www.dk21.net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혜림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